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흑백 요리사에서 배우는 인생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한동안 뜸하더니 다시 화제다. '흑백 요리사'다. 우리 사회를 뒤트는 계급적인 문제인 '금수저, 흙수저'에서 모티브를 따왔을 것이다. 이 방송이 대히트를 친 이유는 여럿이 있는데 낮은 계급 '흑 요리사'의 인생 역전, 승부 뒤집기에 열광하는 서사가 제일 컸던 것 같다.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이 나길 바라고, 그런 성공담에 경도되게 마련이다. 문득 왕년의 입춘에 선수의 '라면 신화'가 떠오르는 것도 그런 배경이다. 임 선수는 86년 서울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면서 혜성처럼 등장했고, 그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강조하는 신문기사에서 라면만 먹고 뛰었다는 식으로 과장되게 회자되며 생겨난 신화다. 물론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이야기다. 과거엔 기사를 쓰다가 이렇게 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어쨌든 요리 대결이라는 흥미로운 소재, 이미 유명한 요리사로 구성된 백 요리사와 무명 요리사(계다가 서사를 입혀라 철가방요리사니, 만화책으로만 요리를 배웠으니 하는 요소를 배제했다)가 거액의 상금을 놓고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친다는 건 너무도 재미있을 수밖에 없었다. 잘 조질된 연출도 눈에 띄었다. 이 프로

그램은 대결을 진행해가며 방송된 게 아니라, 이미 승패가 진행될 상태에서 사후에 편집한 것이라 더욱 극적인 연출이 가능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승부 경쟁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의 주제에 맞춰 이미 짠 필름 편집을 크게 가미했다는 뜻이다. 그 때문에 극적인 승부를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었다. 이것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흥미와 시청률을 지상의 목표로 하는 '예능'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어쨌든 넷플릭스 제작진의 영리한 제작은 성공했다.

이 방송이 보물의 수많은 예능(연예인이 나오는 토크쇼나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이나 요리경연 프로그램과 다른 건 이른바 '서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또는 사후에 시청자들이 그 서사를 '읽어냈다'는 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누구나 배경이나 유명도와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것이 제일 큰 요소였다. 이미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요리사들 다수는 등도 보도 못한 무명 요리사들과 나란히 서서 요리 평가를 받으며 크게 긴장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고, 심지어 1회전에서 지면서 긴장하거나 실망스러워 하는 등 스타일을 구기는 장면도 그대로 노출되었다. 인센티브 없이 싸우고 승복한다는 점, 무명이라도 실력만 있으면 유명 요리

사를 이길 수 있다는 점은 시청자를 흥분시키는 절대 반지였다. 또 무명이면서 고난과 독학의 배경이 있는 출연자들은 그 서사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다. 요리 프로그램이지만 이것을 맛있는 요리를 구경한다거나 3억 원 상금을 놓고 토너먼트 대결을 한다는 것으로만 받아들인 시청자는 없을 것이다. 바로 그 부분이 이 방송의 남다른 특징이었다.

현대인은 대리의 시대를 산다. 현대식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라는 것도 결국은 내 권리를 대리(대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방송도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대리로 사랑도 하고(드라마) 고난도 겪고(다큐멘터리) 경쟁도 한다(흑백 요리사). 그 대리적 상황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재는 아니다. 흑백 요리사의 경쟁으로 우리가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매우 훌륭한 것이지만, 우리 삶의 실재는 또 아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슈를 통해서 얻는 감정은 그것을 확장하는 데서 가치를 발하게 된다. 배경 없이, 기술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진짜 실력으로만 경쟁하는 사회를 우리가 열렬히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평소 감정을 '흑백 요리사'에 투사한 것은 아닐까.

<음식 칼럼리스트>

의료칼럼



조형진 보리안과병원 원장

안저검사의 중요성

이는 시신경유두와 망막을 지나는 망막 혈관이 있고, 중심부에는 황반이 보인다. 의사가 직접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안저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만 해도 보이나 다른 검사보다도 번거로움도 덜 하고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동공을 확대해서 보는 산동을 해야 더 잘 보이지만 최근에는 산동을 하지 않고도 주변부까지 촬영하는 검사장비까지 나와 있어 산동으로 인한 불편함도 줄었으니 검사받기가 한층 수월해졌다.

흔히 말하는 3대 실명 질환인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도 안저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거기에 고혈압망막병증, 망막 혈관질환, 기타 시신경병증 등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대부분의 안과 질환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다.

녹내장은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 불릴 정도로 초기 자각증상이 없는 대표적 질환이다. 녹내장은 여러 원인에 의해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시력상실까지 이르는데, 시력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안저검사를 통해서 증상이 없어도 병을 발견할 수 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의 노화에 의해 시세포가 퇴화해 발생하는 질환인데 초기 자각증상이 거의 없다가 증상이 되면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고, 직선이 굴곡져 보이며 눈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보이는데 병변이 황반 중심(시와)에 가까울수록 시력저하가 초

기에 나타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모르고 지나다가 증상이 있어서야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으니 조기에 병이 있는지 발견하는 데에 안저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당뇨망막병증은 특히나 시력으로 증상의 정도를 알기 어렵다. 진행이 상당히 된 망막병증에서도 황반부의 침범이 없는 경우는 시력이 좋게 나오고, 병변이 황반부에 집중된 경우엔 심한 시력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질환도 초기에는 통증도 없고 거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중기에 비문증, 광시증, 시야 흐림, 야간 시력저하, 독서장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했다가 문제를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말기인 경우가 많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는 병증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안저검사가 필수다. 당뇨병 환자는 약 복용과 동시에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 검진이 필요하며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하면 6개월마다, 병의 진행이 된 경우는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안저검사를 통해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안저검사의 정해진 주기는 없지만, 노화와 함께 유병률이 증가하는 3대 실명질환은 초기 증상을 알기 어렵고 눈이 불편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상태가 심각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여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40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기고



문창현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광주버스킹월드컵, 세계로 비상하다

문화와 문화적 자유로움의 극대화를 통한 '창조성', '다양성', '포용성'에 그 가치를 두고 있다. 버스킹은 뮤지션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예술적 역감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풍경과 표현의 생동감을 풍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그 도시의 문화적 저력을 결정짓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창의적인 전 세계 뮤지션들의 뜨거운 열정의 무대인 제3회 광주버스킹월드컵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도 어김 없이 광주도심을 들쭉하며, 지난 여름의 역대급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한줄기 단비와 같은 시원한 감동과 위로를 선사했다. 32강의 치열한 서바이벌 경연과 함께 아시아 뮤지시팅, 아시아 뮤지션 쇼케이스, 틴틴버스킹, 오픈마이크, 스트릿댄스, 프리버스킹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음악콘텐츠가 어우러져 도시 전역으로 축제열기를 전파하는 '샐러드 보울'형 축제를 지향했다.

이번 버스킹월드컵은 58개국, 781팀, 총 2143명의 세계 뮤지션들이 참가할 정도로 해외시장에서 호평을 받았다. 1회 대회는 46개국, 539팀, 1603명, 2회 대회는 55개국, 792팀, 1732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짐바브웨, 튀르키예, 쿠바 등의 국가가 추가로 참가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시장에서의 반응과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24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실력을 검증받은 32개 팀만이 대망의 광주 본선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특히 버스킹월드컵은 국내외의 다른 뮤지컬페스티벌과의 차별화를 위해 단순히 뮤지션을 초청하는 공연이 아니라 실력파 버스커들 간의 흥미로운 서바이벌 경진인

독특한 공연방식을 채택했다. 세계적으로도 뮤지션 대상의 경연방식을 적용하는 음악축제는 광주버스킹월드컵이 유일하다. 즉 버스킹월드컵은 서바이벌 경연과 함께 국내외 유명 뮤지션 라인업 확보를 통한 고품격 초청공연이 결합된 광주만의 차별화된 뮤지컬페스티벌을 지향했다.

이번 버스킹월드컵에도 코네티(스페인), 수오노 다예레(이탈리아), 신촌블루스(한국), 풍니(한국) 등 국내외의 유수의 뮤지션들이 초청돼 수준 높은 고품격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워맥스, 탈린뮤지워크, 뮤직케넥트아시아, 글로넷 등 해외의 저명 뮤지컬페스티벌 및 플랫폼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네트워크 구축에도 상당한 성과를 일궈냈다는 평가다.

'창조성', '다양성', '포용성'을 기치로 하는 버스킹 정신은 다양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다. 또한 광주 동구는 세계축제도시로의 도약과 함께 세계시장을 향한 음악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버스킹월드컵은 세계인이 사랑하는 세계 속의 광주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유용한 기제이다. 이번 버스킹월드컵도 '메이드 인 광주'라는 축제브랜드를 통해 혁신적이고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버스킹정신을 지향하고자 했다.

이제 광주버스킹월드컵은 버스킹정신을 구현하며 세계로 비상하는 글로벌 축제를 꿈꾸면서, 버스킹월드컵의 세계화를 위해 한단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할 때이다. 이제의 광주버스킹월드컵으로 인해 세계가 들쭉일 차례다.

社說

北 경의·동해선 폭파, 남북 위기조성 중단을

북한이 15일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의 남북 연결도로인 경의선과 동해선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정오경 한반도 서쪽인 경기도 파주와 동쪽인 강원도 제진 인근에서 폭약을 동원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북측은 연결도로를 완전 차단할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추가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전날 휴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행동이어서 추후 움직임에 우리 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측의 폭파로 우리 측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10m 앞에서 폭탄을 터뜨린 행위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경계용 대응사격을 가했다.

북한 일부 구간을 폭파한 경의선·동해선은 건설비용 1억 3920만 달러(약 1810억 원)를 전부 우리 정부가 부담해 완공된 도로로 남북 협력의 상징이었다. 이 도로는 한때 개성공단과 금강산 육로 관광

에 크게 기여했다. 어찌 보면 사실상 유일한 남북협력의 상징이랄 수 있는 도로를 북한이 폭파한 것은 큰 유감이며, 우리 국민으로서 이해하기도 힘든 행동이다.

북한의 도로 폭파는 우리 군이 이미 예견했던 사항이라고 한다. 북한은 평양 상공을 뚫은 무인기 빼다 살포 사건 후 지난 14일 열린 국방 및 안전분야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북한의 매체 보도 이후 진행됐다.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 행위를 감행해서는 안 되며, 우리 정부도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 소통 채널이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는 작은 갈등이나 신경전에도 의해서도 사건이 촉발될 수 있다. 정부와 우리 군은 작은 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해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지역 공기업 한전, 취약계층 지원 줄여서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재정 건전화와 부채 감소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과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KENTECH·이하 켄텍) 출연금 집행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성산)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재정건전화 계획 시행 이후 기부금 및 출연금 절감 세부내역'에 따르면 2022년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68억 원 가량 줄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학습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동수첩 지원 등 10여 개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또한 지역 대표적 인제양성 요양인켄텍 또한 타격을 받았다. 한전의 켄텍 출연금은 승인된 예산의 절반 정도만 집행됐다. 2022년에 승인된 예산 728억 9600만원 가운데 42.05%(306억 5600만원)가, 2023년에도 1250억 원 규모의 출

연금 승인을 받았으나 56.6%(707억 6600만원)만 실제 집행된 것이다. 교수진·학생 연구비가 삭감되며 미래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전은 이러한 원인으로 재정 위기를 꼽는다. 임금 인상분을 자체적으로 반납할 정도로 재정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한전은 자구노력을 이어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원금액을 줄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래 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적으로도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전은 미래 에너지 신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국적 결단에서 승인된 켄텍 출연금 전액이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無等鼓

지난 2019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인상 깊었던 작품 중 한 편이 여성국극을 소재로 한 정은영 작가의 '정동의 막'이었다. 오랫동안 여성국극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작가는 여성국극 중에서도 남자 역을 맡은 젊은 국극 배우의 무대 안팎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줬다.

여성들만이 출연하는 창극인 여성국극은 한 때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특히 남장 배우들은 '사생팬'이 쫓아다닐 정도로 인기 스타였다고 전해진다. 여성국극은 김소희·박귀희·임준영 등이 '여성국악동호회'를 조직한 것이 그 출발로, 2세대로 이어져, 김진진 등이 활약하던 시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1948년 '옥중화'에서 시작된 여성국극은 1950년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지만 1960년대 말 쇠퇴하고 만다.

여성국극과 대비되는 게 일본의 다카라카즈 가극단이다. 1913년 창립된 다카라카즈 가극단은 여성으로만 구성된 단체로 한류 전철의 창업주가 고향인 다카라카즈에서 창립했다. 가극단은 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스타일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데 일본 순정만화를 원작으로 한 '베르사이유

의 장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다양한 작품을 공연하고 있으며 가극단의 인기는 111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중'이다.

TV 드라마 '정년이' 덕에 여성국극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화제를 모으며 연재됐던 동명의 웹툰이 원작인 '정년이'는 1950년대를 배경으로 최고의 국극 배우를 꿈꾸는 목표 출신 소녀 '윤정년'과 주변 인물들의 경쟁과 연대, 성장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주인공 김태리의 존재가 눈에 띈다. 웹툰 원작자가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서 김태리가 연기한 '숙희'를 모티브로 정년의 캐릭터를 만들었다

는 셈이다. 연기 잘하는 배우로 꼽히는 김태리는 이번 역할을 위해 3년간 소리를 배우고 전라도 사투리를 익히는 데도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한다. 얼마 전 '여성국극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90세의 조영숙 명인이 무대에 올라 화제가 됐다. 30대 국극 배우들도 함께 호흡을 맞췄다. 여성국극이 예전 같은 명성을 누리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명맥이 끊기지 않는다면 하는 바람이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Table with Kwangju Ilbo header,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